

ABSTRACT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기업문화의 과제

발표자 : 김영진 (서경대 경영학과)

남북한은 과거의 동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분단된지 50년 가까이 이렇다 할 내부교류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단절로 인한 상호간의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향후 남북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부에 폐쇄된 환경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전통적 집단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북한주민들과, 자본주의 체제와 서구문화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개인주의화된 남한 사람이 서로 접촉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문화적 이질감은 남북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다수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느끼게 될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통일시대에 남북한 사람이 접촉하면서 함께 일하게 될 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고 문화통합을 위한 기업문화의 가치정립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상이한 체제속에서 형성되어온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남북의 상이한 문화가 마주칠 때 빚어질 갈등의 본질을 유교 문화와 자유주의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재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 접근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기업문화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서로 다른 가치의 추구로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이한 가치가 융화 내지 양립될 수 있는 문화통합의 방향을 탐색한다.